

‘안전’ 중점...원만한 대회 진행 ‘총력’

“출발은 좀 늦었지만 괄목할 성과로 보답”

간화선 무차대회 준비 현황

서울시 경찰 등 관계기관 협의 승·하차 지점 주차장 안전요원 광장인근 화장실 추가확보 총력

세계평화 기원대회 및 간화선 무차대회가 전국 교구본사의 동참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대회를 총괄하는 기원대회 봉행위원회 역시 행사 준비에 심혈을 쏟고 있다. 전국에서 1500여대의 버스가 광화문에 모이는 대규모 대회만큼 무엇보다 ‘안전’에 중점을 두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기원대회 봉행위원회는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대회 안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안전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제기되면서 대회가 끝나고 참가자들이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안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기원대회와 관련 의료, 소방 등을 심의하는 서울시 안전계획심의를 통과한데 이어 서울시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역시 대회당일 광화문광장 주변 교통통제나 원활한 승·하차를 위해 적극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국에서 운집하는 불자들이 승·하차시 발생하는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사찰별 버스 승·하차 지점을 동일하게 하고 이동거리를



광복 70주년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 기원대회 및 간화선 무차대회가 성공적이고 안전하게 회향할 수 있도록 봉행위원회는 서울시, 경찰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2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준비 현황을 브리핑 받는 총무원장 자승스님(왼쪽 첫번째). 불교신문 자료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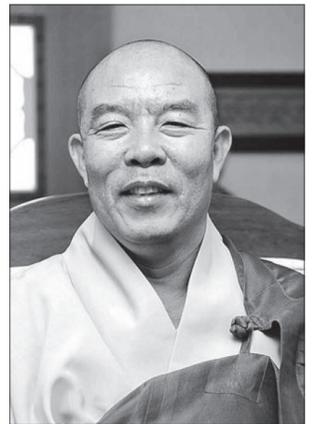
최소화하기 위해 광화문광장 주변으로 배치했다. 또 교구본사 총무국장, 총무실장이 참여하는 회의와 사전 광화문 현장 점검을 통해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환자 및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이동을 위해 구급차 9대를 현장에 대기시킬 계획이며, 구급차 이동 및 대피를 위한 안전동선도 확보했다.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참가자들의 편의를 위해 화장실 37곳도 배치할 계획이며, 광화문광장 인근 빌딩 화장실을 이용하는 방안도 협의를 진행 중이다. 주차시설 확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협의를 펼쳐, 광화문광장 인근 학교 10여 곳을 확보한 상황이다. 경찰과 안전요원, 포교사단도 광화문광장 곳곳에 배치해 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대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계종과 협의해 연동행렬과 기원대회 구간 교통 통제와 지방에서 상경하는 분들이 만큼 버스를 분산해 승·하차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평화를 기원하는 대회가 성공적이고 안전하게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봉행위원회 사무총장 남전스님도 “승·하차 지점 마련, 안전동선 확보, 화장실 배치 문제 등 서울시와 경찰청 등과 협의해 준비하고 있다. 교육청에도 협조를 구해 학교 10여 곳도 주차장으로 확보했다”며 “관계 기관과 충분히 협의해 문제없이 대회를 준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18대 동국대 총장 보광스님



지난 2일 서울 은석초등학교에서 열린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290회 이사회에서 동국대학교 18대 총장으로 선임된 보광스님(사진)은 미리 준비한 기자회견문으로 소회를 대신했다. 스님은 “출발은 늦었지만 괄목할만한 성과로 보답하겠다. 동국대학교가 새로운 100년의 도약을 준비하는데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부탁했다.

기자회견문에서 스님은 지난해 연말부터 이사회가 파행되고 총장 선임이 늦어지는데 대해 “총장 선임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은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학의 발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부 이사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원인”이었다며 “상황이 일단락된 만큼 지혜를 모아 동국대학교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논란이 된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서도 부주의함을 인정하며 유감의 뜻을 전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연구윤리실질성위원회의 편파적이고 도출속적인 판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총장후보로 임후보하면서 밝힌 ‘일심동행(一心同行)’의 경영철학을 다시 한번 강조한 스님은 “구성원들을 존중하고, 화합 통합해 함께 가는 총장, 도덕적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반듯한’ 총장이 되겠다”며 “대학다운 대학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보광스님은 1970년 문묘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경주 분황사에서 동현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했다. 1980년 4월 범어사에서 고암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1989년 일본불교대학교에서 문학박사를 취득, 1990년 동국대 조교수로 강단에 섰다. 불교대학장 및 대학원장을 맡았으며 1997년부터 지금까지 전자불전문화콘텐츠 연구소 소장 소임을 맡고 있다. 100주년 기념사업본부장, 대외협력처장 등을 역임하면서 학교발전기금 610여억 원을 조성했다. 이밖에도 한국정토학회 회장, 중앙총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조계종 장학위원장, 대각회 이사를 맡고 있다. **어현경 기자 eonald@ibulgyo.com**

불교방송 사장 후보자 공모

진흥원, 6월 12일까지 접수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철)이 BBS 불교방송을 이끌어갈 신인 사장으로 추천할 후보자를 공모한다.

후보자 자격요건은 △불교정신과 불교사상에 투철한 불교인 스타일 맥락과 변화방향에 맞춰 불교정신과 사상, 불교문화를 효과적으로 전달·개발·보급할 강한 의지를 가진 자 △방송에 대한 식견을 갖고 미디어 융합시대에 부응할 방송콘텐츠의 기획과 제작을 지도하고 뒷받침할 역량과 경륜이 있는 자 △BBS의 청사진 및 방송여건 개선을 위한 재원 발굴, 증대 등 경영능력의 발휘 가능성을 제시하는 자 △195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등이다. 이에 지원하려면 이력서 1부(사진·상벌사항·서명 또는 날인 포함 필수), 경영계획서 1부(A4 5~10매), 수계증 등 불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관련서류를 오는 27일부터 6월12일 오후 6시까지 불교진흥원 사무국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BBS 사장은 정관에 따라 대한불교진흥원에서 복수로 추천한 인사를 BBS이사회에서 최종 1명을 선임한다.

허정철 기자 hic@ibulgyo.com



지난 1일 보광스님 등 8명의 스님이 문화재위원으로 위촉됐다. 왼쪽부터 흥선스님, 돈관스님, 정념스님, 해일스님, 화법스님, 미등스님, 명법스님.

문화재위원 스님 8명 재가총무원 4명 전문위원 위촉

문화재 정책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문화재위원회에 총 8명의 조계종 스님이 위촉됐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지난 1일 문화재 보존·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는 문화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고 발표했다.

전체 68명이 위촉된 문화재위원회에는 제7교구본사 직지사 주지 흥선스님(동산문화재분과), 제10교구본사 은혜사 주지 돈관스님(연기탑문화재분과), 서울 흥전사 주지 정념스님(사적분과), 동국대 교수 보광스님(근대문화재분과),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해일스님(건축문화재분과), 불교중앙박물관 화법스님(매장문화재분과), 전 불교문화재연구소장 미등스님(무형문화재분과), 서울대 강사 명법스님(세계유산분과) 등 스님 8명이 포함됐다.

전문위원에는 스님과 중앙총무기관 총무원들도 포함돼 있다. 중앙총회의원 각립스님(건축문화재분과)과 함결스님(사적분과)을 비롯해 바기리 조계종 총무원장종책특보(세계유산분과), 박상준 불교문화재연구소 정책연구실장(세계유산분과), 심주안 조계종 총무원 문화팀장(동산문화재분과), 이봉희 불교중앙박물관 팀장(근대문화재분과) 등이다.

이전에 비해 스님과 총무원들의 위촉이 늘어난 것은 불교계가 문화재에 대한 전문성을 확대해 왔음을 반증한다.

특히 과거 스님들의 위원 위촉이 건축문화재분과나 동산문화재분과에 집중됐던 것에 비해 매장문화재분과, 사적분과, 천연기념물분과 등으로 확대된 점이 눈에 띈다. 그간 불교계는

불교문화재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 불교계의 참여 확대를 주장해 왔다.

이번 위촉으로 불교문화재 보존관리에 있어서 균형 잡힌 문화재 정책 제정과 불교계의 견반영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 무형문화유산과 세계유산 분야가 중요시안으로 부각되는 만큼 체계적으로 발굴 보호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은 “장기재임 위원 비율을 최소화하고 겸직은 직전 위원회의 26명에서 14명으로 낮췄다”며 “문화재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균형적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인사를 중심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의 임기는 2015년 5월 1일부터 2년간이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위문 및 동해해상안전기원법회

불기2559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요식

■ 일시 : 2015년 5월 14일(목요일) 오후 2시

■ 장소 : 동해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대강당(경승실)

■ 연락 : 경무과 033)680-2198, 회장 010-6373-7501

경 승 위 원	대한불교조계종	낙 산 사 주 지	도 후
경 승 위 원	대한불교조계종	구 방 사 주 지	천 운
경 승 위 원	대한불교조계종	삼 개 사 주 지	진 성
경 승 위 원	대한불교조계종	삼 화 사 주 지	효 림
경 승 위 원	대한불교조계종	삼 장 사 주 지	현 광
경 승 지 단 장	대한불교조계종	월 정 사 부 주 지	원 행

불교방송(BBS) 사장 후보 추천을 위한 공모

(재)대한불교진흥원에서는 불교정신과 불교사상에 투철한 불교인으로서 시대의 맥락과 변화 방향을 인식하여 불교사상 및 정신문화를 전달·보급할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방송과 현대 미디어 발전 상황에 대한 식견을 지니고 있으며, 불교방송(BBS)의 현안 해결방안과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실천할 수 있는 분을 BBS 사장 후보로 추천하고자 후보자를 공모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 • 제출서류 • 제출(응모) 기간 • 제출처 • 면담 일시 • 참고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불교정신과 불교사상에 투철한 불교인 ② 시대의 맥락과 변화 방향에 맞추어 불교정신과 사상 및 불교문화를 전달·개발·보급할 강한 의지를 가진 분 ③ 방송에 대한 식견을 갖고 미디어 융합시대에 부응할 방송콘텐츠의 기획과 제작을 지도하고 뒷받침할 역량과 경륜이 있는 분 ④ BBS의 청사진 및 방송 여건의 개선을 위한 재원 발굴과 증대 등 경영 능력의 발휘 가능성을 제시하는 분 ⑤ 195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이력서 1부 (사진/ 상벌사항/ 서명 또는 날인 포함 필수) ② 경영계획서 1부 (A4 5매 ~ 10매) ③ 수계증 등 불교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 ④ 기타 의견서 (선택사항임) <p>2015년 5월 27일(수) ~ 6월 12일(금) 18:00 (12일 우편소인 유효)</p> <p>(재)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 (02-719-1855, 교한 210) 주소 : 121-714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20 다보빌딩 15층</p> <p>추후 개별 통보</p> <p>사장은 대한불교진흥원의 복수(2인) 추천 후 BBS이사회에서 1명 선임함(BBS정관 제5조 5항).</p>
---	--

www.kbpf.org